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박재흥**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을 만하임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다. 여기에서 검토할 쟁점들은, 1) 세대의 개념, 2) 세대 형성의 기반, 3) 세대의 내적 분화, 4) 세대간 경계선 설정의 문제, 5)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개념에 관련된 쟁점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세대문제에 관한 만하임의 개념과 이론이 매우 유용하고 지식사회학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이론이 사회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만 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세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념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하임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점은, 1) 세대의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개념화, 2) 세대내 분파 개념의 도입, 3) 세대차이·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적 이해의 필요성 제시, 4) 현재적-잠재적 세대갈등의 개념 구분 등이다.

핵심단어: 세대갈등, 코호트, 잠재적 갈등, 역사적 경험, 사회운동, 만하임

* 이 논문은 1997년도 경상대학교 연구장학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올해 초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한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¹⁾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부실에서 찾기도 하고 기성세대 전반의 잘못된 처신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암시하는 한가지 분명한 점은 청소년이 어른들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양자간에는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한 벽은 급속한 사회변동이 빚은 세대격차의 한 모습이며 동시에 세대현상의 한 단면이다.

한국사회의 지난 한 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으며 특히 60년대 이전과 이후는 빈곤과 풍요의 시대로 묘사할 수 있으리 만치 두 시대는 연대기적 시간 간격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대문제에 관한 사회학적 기초를 확립한 칼 만하임(Mannheim, 1952(1928))은 세대갈등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변동을 겪는 사회일수록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대격차도 심화되고 갈등의 소지도 키질 것이다. 서구에서는 60년대 학생들의 체제 저항운동이 세대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층과 기성세대간의 관계가 한 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년층과 청·중년층간의 세대갈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engtson, 1993 참조). 이러한 서구에서의 활발한 세대 연구와 견주어 볼 때 서구에 비하여 보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세대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은 역설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세대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90년대이래 조금씩 축적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부모-성인자녀간 세대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²⁾ 그렇지만, 세대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거

1) 만 9-17세 청소년 1만 여명(한국 500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응답한 17개국(일본 제외) 청소년들의 평균 비율이 72%임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동아일보 2001년 10월 11일자 참조).

2) 세대문제나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국내에서의 경험적 연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사회학회, 1990; 조혜선, 1990; 한완상, 1991; 최정례·김태현, 1991; 박재홍, 1992, 1995, 1999;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정석·김익기, 2000; 정태연·한광희, 2001).

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을 만하임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다. 여기에서 검토할 쟁점들은, 1) 세대의 개념, 2) 세대 형성의 기반, 3) 세대의 내적 분화, 4) 세대간 경계선 설정의 문제, 5)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개념에 관련된 쟁점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세대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찾아내어 나름대로 개념적·이론적 보완을 가할 것이다.

II. 세대의 개념에 관련된 쟁점

인간은 출생 시점에 따라 세상사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부여, 사회적 역할과 권리·의무 관계, 사고방식과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대인적 수준이나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그러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용어는 아주 먼 옛날부터 만들어져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generation)의 어원(語源)은 '성립' 혹은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이라는 의미를 갖는 희랍어 'genos'에서 유래하는데, 구체적 용례로는 새로운 아이의 탄생, 새로운 또래집단의 등장, 일정한 생애단계로의 도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Nash, 1978)³⁾. 이러한 어원적 고찰은, 세대 개념이 연령 코호트(age cohort)에 기초한 사회분화, 즉, "집단내의 공통점"(sameness with one group)과 "집단간의 차이점"(distinctiveness with another)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Bengtson et al., 1985: 306)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대라는 은유는 오랜 옛날부터 시간, 노화, 연령집단, 사회구조 등을 반영하는 사회현상들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다"(Bengtson et al., 1985: 304).

1. 세대개념 명료화에 관한 쟁점

세대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칼 만하임(Mannheim, 1952(1928))으로부터 비롯된다(Bengtson, Furlong, and Laufer, 1974; Pilcher, 1994). 물론 19

3) Bengtson, Cutler, Mangen & Marshall(1985: 306)에서 재인용.

세기에도 오귀스트 콩트(A. Comte),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저스틴 드롬멜(J. Dromel) 등의 학자들이 세대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José Ortega y Gasset)는 1910년대부터 세대문제에 관한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하였지만(Marías, 1970 참조), 연구의 체계성 면에서나 사회학적 합의 면에서 볼 때 만하임의 연구를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

세대에 관한 연구(학생운동, 세대격차 문제 등)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러한 관심의 폭증은 무엇보다도 60년대 구미 사회를 휩쓸고 간 청년학생들의 체제 저항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세대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세대 개념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주요 배경은, 세대 연구가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세대 개념이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정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시도한 대표적 연구로는 켈저(Kertzer, 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세대 개념은 다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첫째, 세대 개념을 조부모-부모-자녀관계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다. 이 용법은 전통적으로 사회인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는데, 사회학에서는 부모-자녀간 가치관의 연속성과 단절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인구학에서는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통한 인구 교체와 관련하여 이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 시기 출생집단으로 보는 입장인데, 인구학자들이 이 용법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동일 코호트로서의 세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 동질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는데, 이러한 코호트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칼 만하임이다”. 셋째, 세대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용법으로서, 예컨대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용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용법에서는, 동일한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특정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용법이다. 이 용법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1914년 세대, 한국전

쟁 체험 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네 가지 용법을 비교해 보면, 생애주기 단계로서의 세대와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는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특정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 개념은 폭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코호트 중에서도 주로 청년층의 코호트 경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코호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생애 단계'로서의 세대 개념에서는 연령효과와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애 단계를 공유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동일 코호트에 속하며 또한 실제 연구에서는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 개념과 마찬가지로 주로 청년학생층이라는 일부 코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족계보'상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은 10대 부모세대로부터 100세 이상 부모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호트가 동격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코호트로서의 세대와는 의미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주로 친족계보적인 용법과 코호트적 용법을 대비하여 이루어지는 까닭은, 아마 이와 같은 개념간의 친화력 여부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대 개념의 명료화 논쟁과 관련한 입장은, 1) 개념의 명료화를 위하여 세대 개념을 친족계보적인 의미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는 코호트 혹은 연령집단(age group) 개념 등으로 대체하자는 입장(Ryder, 1965; Glenn, 1977; Kertzer, 1983; Bengtson, 1993)과, 2)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개념을 인정하자는 입장(Spitzer, 1973; Schuman & Scott, 1989; Pilcher, 1994)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두 입장 중에서 미국 사회학계에서 지배적인 입장은

4)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이 네가지 용법 중에서 당연히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개념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학계의 대표적인 세대 연구자인 뱁슨과 그의 동료들은 만하임의 세대 개념을 코호트로서의 세대가 아닌 별도의 범주로 분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회적 세력"(Laufer & Bengtson, 1974), "세대단위" 혹은 "사회갈등적 시각"(Bengtson et al., 1985), "역사적 세대" 혹은 "연령코호트내 하위집단"(Bengtson, 1993) 등의 범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뱁슨 등이 만하임의 세대 개념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인구학자나 노년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코호트적 접근법은 세대가 사회변동의 주관자(agents)라는 만하임적 함의를 대체로 거부하기 때문이라 한다(Laufer & Bengtson, 1974: 184).

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만하임의 세대 개념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미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거니와(Spitzer, 1973), 더욱이 코호트 혹은 연령집단이라는 인구학적 범주로는 만하임류 세대론의 핵심인 역사적 역동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만하임은 세대 개념을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 “실제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 “세대단위(generation unit)”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Mannheim, 1952: 302-304). ‘세대위치’란 동일한 역사적·문화적 권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로서 맑스의 즉자적 계급(Klasse an sich) 개념과 마찬가지로 ‘실제세대’로 발전할 잠재력만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동적 동요(dynamic destabilization) 과정의 사회적·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수동적으로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실제세대’로 발전되며, ‘실제세대’ 내의 보다 강고한 연대를 갖는 분파(分派)가 바로 ‘세대단위’이다.

이러한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을 설명하려는 명시적 의도 하에서 구성된 개념이며,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세대인 ‘실제세대’·‘세대단위’는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 세력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이 개념은, 세대위치와 실제세대·세대단위의 개념 구분에서 드러나듯이, 코호트나 연령집단과 같은 명목적 범주라기보다는 계급개념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역동성 규명에 유용한 사회적 실재의 성격을 갖는다(박재홍, 1992: 17 참조). 마샬(Marshall, 1980) 역시 코호트가 “통계학적 가공물(statistical artifacts)”에 불과한 데 비하여 세대는 “사회학적 실재(sociological reality)”라고 설파한 바 있으며⁵⁾,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한완상(1991)은 세대가 실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세대 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개념, 즉 ‘역사적·문화적 경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세대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자 할 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러한 세대 개념(cohort)을 친족 계보적인 의미의 세대 개념(kinship descent)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상 논자가 세대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글이나 말의 맥락을 통해서 어

5) Kertzer(1983: 148)에서 재인용.

는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의 명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의 용법을 명시적으로 밝히든지 혹은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개념에 수식어를 붙이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필쳐(Pilcher, 1994)가 제안한 “사회적 세대(social generation)”, 혹은 벵슨(Bengtson, 1994)이 사용하는 “역사적 세대(historical generation)”의 개념이 바로 후자의 예이다. 필쳐는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관계와 관련된 용어로는 수식어 없이 ‘세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코호트와 관련된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는 “사회적 세대”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⁶⁾. 이 개념이 아직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세대 개념은 만하임의 전통에 따르는 “사회적·역사적 세대”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수식어 없이 사용할 것이다.

2. 세대의 개념화

지금까지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만하임의 세 가지 수준의 세대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개념은 사회운동적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위해서는 그 함의를 다소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세대 개념을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코호트 시각에 의거하여 세대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보면, 세대란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하임이 시사했듯이, 이러한 출생 코호트가 갖는 중요한 함의는, 그들이 비슷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그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비슷한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으로 인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의를 개념정의에 포함

6) 사회적 세대라는 용어는 멘트르(Mentré)의 1920년 저서(*Les générations sociales*)의 제목으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그 역시 친족계보적 의미의 세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회적 세대’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는 다분히 심리학적이다. 그는 세대를 멘탈리티, 정신, 신념과 욕망을 공유한 사람들로 정의한다(Marías, 1970: 110 참조).

시킬 때, 세대 개념은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코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홍, 1995 참조). 이러한 개념 규정은 사회·역사적 과정에의 참여나 공동운명체로서의 자의식 및 연대감까지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만하임의 "실제세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식이나 행위 면에서의 공통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대위치"보다는 높은 수준의 개념일 것이다.⁷⁾

이러한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만하임의 실제세대·세대단위 개념은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 세력을 의미하는데, 세대현상이 반드시 사회운동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대차이·세대격차 현상은 사회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세대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서 사회운동적 요소를 다소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만하임의 이론적 틀과 개념들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⁸⁾ 이론과 관찰(조사)의 연결, 경험적 자료(질적 자료이건 계량적 자료이건 간에)를 통한 연구를 위해서는, 조작화나 경험적 관찰이 쉽지 않은 만하임식의 엄격한 개념 규정보다는 위와 같이 세대위치와 실제세대를 잇는 중간 수준의 개념 설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공유된 역사적·문화적 경험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의식구조와 행위양식을 낳는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이론적 수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박재홍(1999)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기성세대의 생애사적 배경(역사적·문화적 경험)이 기성세대 특유의 세대특성(의식구조와 행위양식) 및 젊은 세대에

7) 이러한 개념 규정은,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이 시사하듯이, 동일한 코호트가 보여주는 의식과 행위양식의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코호트와의 큰 차이와 견주어 상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그 다양성은 작은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서로 다른 세대들을 집합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이와 같이 세대간의 큰 차이와 세대내의 작은 차이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적 수준에서 볼 때, 우선 세대간 큰 차이를 관찰한 후, 세대내 작은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절차가 적절하다.

8) 필처(Pilcher, 1994: 492) 역시 만하임의 이론과 개념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시킬 때 겪는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만하임의 세대 연구가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탁월한 이론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경험적 연구를 위한 모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 세대차이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양자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후속 연구에 의해 보다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위 정의에서의 인과관계 설정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의식과 행위양식의 동질성은 공동운명체로서의 자의식 및 연대감 형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차후 경험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식·행위양식의 공유가 세대내 연대감 형성에 기여하는지의 문제는, 위에 제시한 중간 수준의 개념을 만하임의 실제세대·세대단위 개념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이다.

3. 연령효과, 코호트효과, 기간효과

지금까지 필자는 세대 개념의 명료화에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세대 개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대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효과(연령효과, 코호트효과, 기간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세대 혹은 연령집단에 관한 연구는 흔히 세대 혹은 연령집단간의 의식, 태도,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이가 코호트 혹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연구결과 드러난 차이가, 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한 것인지(코호트효과), 현재의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연령효과), 혹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것인지(기간효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나타난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이론적 전제나 가정과는 무관하게, 이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교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세 요인(효과)의 구분이 필수적일 것이다. 개념규정을 분명히 하면, 연령효과(age effect)란 사회적·생물학적 성숙과정에 따른 차이, 코호트효과(cohort effect)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에 의해 빚어진 차이, 기간효과(period effect)란 특정 시점에서 관찰할 경우에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다(Bengtson et al., 1985 참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어떠한 자료도 위 셋 중 어느 하나의 효과로 설명되지는 않았으며 세 효과의 증거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각 발견되었다(Bengtson et al.,

1985: 309-315 참조). 버스(Buss, 1974)는, 코호트 분석을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횡단적 설계(cross-sectional design)와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design)가 세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각 한계를 안고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횡단적 설계는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가 함께 뒤섞여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며⁹⁾, 종단적 설계는 코호트 관련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효과들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횡단 순차적(cross-sectional sequential) 디자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고, 자료분석 시에는 종단 순차적(longitudinal sequential) 분석과 시차 순차적(time-lag sequential)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횡단적 분석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Buss, 1974: 58, <그림 1> 참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상 이러한 평가는 계량적 분석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세대문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결과를 해석함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예컨대 한 차례의 횡단적 분석 결과 나타난 연령별 차이를 코호트의 역사적 경험에만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혹은 생애주기 단계상의 차이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 역사적 접근방법이나 질적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세 효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들에 대한 개념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II.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들

1. 세대 형성의 기반: 생물학적 기초와 사회문화적 역동성¹⁰⁾

세대 개념을 출생 코호트(동일 시기 출생집단)의 견지에서 이해할 때, 그 개념에는

9) 그러나, 버스(Buss, 1974: 57-58)에 따르면, 횡단적 설계는 세대간 상호이해나 의사소통 촉진의 연구목적 하에서 특정 시점의 각 연령층이 태도나 의식면에서 전반적으로(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포함)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려고 할 때에는 유용하다고 지적한다.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일정한 한계를 갖는 수명 등의 생물학적 요소가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현상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하임은 인간이 사회문화적 과정에 능동적·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생노병사의 생물학적 리듬에 종속되는 생물학적 유기체임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하임은 세대현상 혹은 역사변동을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직접 추론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프랑스의 실증주의 노선의 학자들(A. Comte, A. Cournot, J. Drommel, F. Mentré 등)에게서 발견되는데, 그 한 예로서 콩트(A. Comte)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세대교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역사 진보의 속도도 늦추어질 것으로 생각했다(Mannheim, 1952: 277). 즉, 인간의 유기체적 특성을 통하여 역사발전의 법칙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세대가 일정한 주기(주로, 30년 혹은 15년)를 갖고 교체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세대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했던 프랑스의 많은 실증주의 노선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Mannheim, 1952).

만하임은 많은 세대론 연구자들이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세대교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은 세대현상이나 역사변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매개 요인 없이는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잠재적 형태(latent form)”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생물학적 요인은 세대현상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기층(基層)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세대현상에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의 효과는 직접 관찰될 수 없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문화적 힘의 매개”를 통해서만 세대현상에 반영된다고 한다(생물학적 요인⇒사회문화적·역사적 과정(매개)⇒세대현상) (Mannheim, 1952: 311). 이와 같이 만하임의 세대문제 연구는, 세대현상이 생물학적 리듬에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범주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어떠한 합의된 모형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그의 사회학적인 인식은

10) 대부분의 세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세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만하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는, 1) 만하임(Mannheim, 1952)의 논문에서 세대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주제와 쟁점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2) 만하임 이후 세대문제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었지만 이론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만하임을 뛰어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주로 만하임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절에서는 특히 만하임의 논의에 의존할 것이다.

지극히 정당하다. 만일 상수적(常數的) 특성을 갖는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사회변동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변동의 보편적 법칙이 벌써 발견되었을 것이다.

만하임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세대의 형성, 즉,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생물학적 세대'가 이미 축적된 역사와 사회문화적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역사적 세대'로 발전하는지의 문제이었다. 그는 세대를 계급에 비유하면서, 양자가 모두 구체적 집단이 아닌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로서, 계급은 경제·권력구조에 세대는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에 기반을 둔 위치라고 보았다. 사회적 위치로서의 계급과 세대가 갖는 특징은, 사회적 위치의 공유가 "일정한 범위의 잠재적 경험만을 갖도록 제한하고, 사고와 경험의 어떤 특징적인 양식과 역사적으로 적합한 특정한 행위양식을 미리 갖도록" 해 주며, 그에 따라서 "각 위치에는 어떤 일정한 행위, 감정, 사고양식을 지향하는 경향이 내재한다"는 점에 있다(Mannheim, 1952: 291). 이러한 그의 지식사회학적인 인식은, 1) 출생 시점의 차이는 "사회·역사적 구조에서의 위치의 차이"(Pilcher, 1994: 482)를 가져오며, 2) 그러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세대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의 분화를 낳고, 3)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사고·감정·행위양식의 차이를 낳는다는 인과적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는 세대가 생물학적 리듬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범주임을 시사해 준다.

세대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하임이 제시한 개념 중 주목할만한 것은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와 "새로운 접촉(fresh contact)" 개념이다. 경험의 성층화 개념은, 청소년기의 초기 인상과 경험들이 특정한 세대위치에 속하는 개인들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하임이 제시한 개념이다. 한 개인의 생애사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경험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험들의 배열은 세대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예컨대, 1930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전쟁을 20세에 공업화와 도시화를 30대 중반에 정보화는 60대에 겪게 되지만, 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후(戰後) 어려웠던 경험을 어린 시절에 공업화 및 도시화 경험은 10대 중반에 정보화는 40대에 겪게 됨으로써, 두 세대위치는 '경험의 성층화'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들의 층 중에서 최하층부에 위치한 소년기의 기층경험(primary stratum of experience)이 그 이후의 경험들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소년기 이후의

“모든 경험들은 이들이 의미를 부여받는 기층경험과의 관련 하에서 그것의 특정한 모습과 형태를 부여” 받으며, 이러한 경험들간의 “내적 변증법(inner dialectic)”의 결과 특정한 “의식(consciousness)”이 형성된다고 보았다(Mannheim, 1952: 298).

생애주기 단계의 견지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세대를 앞선 세대와 구분하여 의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이는 만하임의 세대위치 개념이 개인적 수준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초보적 형태의 세대의식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만하임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한 개인이 사물을 “자신의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 즉, 주어진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인생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17세 경으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Mannheim, 1952: 300). 이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출생 코호트가 세대적 특성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도 이 시기와 대략 일치하리라 추정할 수 있으며(Schuman & Scott, 1989: 359), 만하임의 “새로운 접촉” 개념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시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접촉이란 기존의 문화적 유산을 이전 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Mannheim, 1952: 293). 문화는 구속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이 든 세대는 이미 기존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기존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청소년들은 관습이나 제도 등의 문화적 유산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새로이 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사회문화적 과정에 새로운 참여자가 진입하는 세대적 현상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이다.

다른 한편, 만하임은 언어 및 방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개인의 의식과 세계관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을 25세로 보았다. 앞의 논의와 관련시켜볼 때, 생애주기 단계로 보아 대략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청소년기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이 의식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의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만하임이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17-25세)를 세대 형성기로 규정한 슈만과 스콧(Schuman & Scott, 1989)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18세 이상 응답자들(N=1,410)에게 지난 50년간 국내, 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변동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변동을 기록하게 했는데, 코호트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집합적 기억들(collective memories)”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변동들이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의식 형성의 기반이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만하임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20대 중반을 “세대형성의 종료 시점”으로 본 슈만과 스콧트의 해석(Schuman & Scott, 1989: 359)은 만하임의 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필자 역시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만하임은 ‘세대위치 공유’라는 조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적·역사적 과정에의 적극적·소극적 참여를 통하여 그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이 형성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실제세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만하임은 격동기의 도시청년과 농촌청년을 대비하면서, 격동의 소용돌이에 노출된 도시청년들과는 달리 그에 노출되지 않은 농촌청년들마저 ‘실제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만하임의 지적은, ‘실제세대’가 모든 사람이 일정한 연령(예: 25세)에 이르렀을 때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시사해준다. 이 점은 만하임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Mannheim, 1952: 309).

모든 세대위치, 모든 연령집단이 그 세대위치에 고유하며 특정한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집합적 추진력과 형성적 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세대위치에 내재한 잠재력이 현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현실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그 빈도는 사회변동의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이 시사하는 바는, 1) 세대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실제세대·세대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만을 가질 뿐이며, 2) 잠재태(潛在態)로서의 세대위치가 현실태(現實態)로서의 실제세대·세대단위로 발전될 가능성과 빈도(예: 신세대의 출현 빈도)는, 안정된 사회에 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함의는, 세대가 생물학적 기초를 갖기는 하지만 세대 현상은 사회문화적 역동성과의 연관 하에서 볼 때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앞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2. 세대의 내적 분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겪기 때문에 다른 또래에 비하여 의식이나 행위양식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이 그들을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미시적 수준에서 보면 세대 구성원의 계층·계급적 위치, 가족상황, 인성 등이 의식·행위 면에서의 개인차를 야기할 수 있고,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역사적 사건의 충격 정도가 특정 코호트 대부분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engtson et al., 1985: 308).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세대의 내적 분화에 관련된 쟁점을 검토할 것이다.

세대위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 코호트 집단이 반드시 실제세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세대가 출현했을 경우에도 역사적 자극에 대한 상이한 반응에 따라 실제세대 내에 분파가 형성될 수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제는, '실제세대'나 '세대단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분화되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만하임은 이에 대하여 '실제세대'를 구성하는 분파라고 볼 수 있는 '세대단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만하임이 시사하고 있는 '세대단위'의 형성 과정/조건은, 1) 상황의 변화 및 사회적·지적 추세나 조류의 선행, 2) 세대단위의 모태이자 중심점이 되는 소집단의 형성, 3) 소집단의 영향력 확보와 세대위치 전반으로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Mannheim, 1952: 304-315).

만하임에 따르면, 모든 세대위치는 그 세대에 내재한 고유한 "엔텔레키(entelechy)", 즉 "세대의 스타일(generation style)"¹¹⁾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세대위치가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한다고 보았다(Mannheim, 1952: 309).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때, 즉 '세대의 스타일'을 개발해 낼 때 비로소 세대위치는 실제세대·세대단위로 승격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스타일'의 창출, 실제세대·세대단위의 형성에 선행하는 조건이 바로 그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황의 변화와 사회적·지적 추세인 것이다(Mannheim, 1952: 315). 이

11) 엔텔레키(entelechy)란 독일의 미술사(美術史) 학자 핀더(Pinder)가 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차용한 철학적 개념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잠재력의 실현 혹은 잠재태에 대비되는 현실태이다. 핀더는 이 개념을 어느 세대의 "내적 목표의 통일체(unity of inner aim)" 혹은 "인생과 세계를 경험하는 고유한 방식(inborn way of experiencing life and the world)"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Mannheim, 1952: 283에서 재인용). 요컨대, 이 개념은 각 세대에 고유한 스타일, 의식 혹은 정신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와 같이 어느 특정한 세대가 자신의 고유한 의식과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러한 창출을 선도하는 구체적 집단이 형성된다. '세대단위'는 구체적 집단이 아니지만, 세대단위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 집단이 중심점이 되어 추후 세대단위에 의해 계승 발전될 의식과 스타일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 집단이 동년배들에 대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촉"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세대위치 전반의 경험을 엮어내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Mannheim, 1952: 308).

만하임은 세대단위의 예를 19세기 전반 독일의 지성사에서 찾고 있다. 즉, 19세기 초엽에 출현한 낭만주의-보수주의 세대단위와 그보다 조금 뒤에 출현한 자유주의-합리주의 세대단위가 바로 그것이다.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적 관심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그는 독일의 지성사 연구를 통하여 세대문제를 이론화하고 세대단위 개념을 착안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하임이 세대 개념의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눈 것은 세대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발견이지만 그 개념들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그가 사용한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찾기 힘들고 관찰 또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하임의 세대단위 형성 과정과 조건을 경험적 연구에 적용한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 세대단위에 대한 연구로는 로퍼와 벵슨의 연구(Laufer & Bengtson, 1974)와 브룬가트(Braungart, 1974)의 연구가 주목할 만 하다.

로퍼와 벵슨(Laufer & Bengtson, 1974)의 주요 논지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조직 유형의 변화가 대안적 가치관·생활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중간 계급' 출신 청년들이 대안 모색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60년대 저항문화의 흐름을 세대단위와 동일시하면서, 급진주의(radicalism), 방랑주의(freakism/bohemianism), 공동체주의(communalism), 신앙부흥주의(revivalism)이라는 네 유형의 세대단위를 예시한다. 이들은 또한, 이 네 가지 유형이 60년대 서구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Laufer & Bengtson, 1974: 196). 세대단위가 상황 특수적이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은 코호트 시각의 세대론이 갖는 주요 전제(즉, 독특한 세대경험에 기초한 고유한 세대특성)와 대립된다. 다음으로, 세대단위가 일정한 계층·계급적 기반을 갖는다고 본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들은 언어습관과 관심사항이 비슷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 계급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대안적 사고와 생활양식을 창출

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간에서의 공동 위치가 세대단위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Lauffer & Bengtson, 1974: 194). 그러나, “사회변동의 주관자” 혹은 대안적 가치와 삶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간계급 청년으로 한정할 그들의 주장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른가트(Braungart, 1974)는, 세대갈등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 방식과 만하임의 설명 방식을 경로분석(path analysis) 모델로 정식화한 후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만하임의 세대단위 모형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더욱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능주의 모형에서는, 청년층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회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됨으로써 기성세대와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세대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정식화되며, 세대단위 모형에서는 역동적인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의식의 심리학적 구조화”(공동운명체 의식과 강고한 연대감)에 의해 매개될 때 세대단위가 형성되며 세대단위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과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식화된다. 세대단위 모형이 갖는 강점으로는, 환류(feedback) 과정을 모형에 포함시킨 점, 세대내·세대간 비교가 모두 가능한 유연한 설명방식, 사회변동에 대한 높은 설명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만하임의 세대 이론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만하임의 논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적이어서 그의 통찰력과 이론적 함의를 놓치지 않는 계량적 연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이 갖는 문제점은, 그 개념이 사회운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유용하지만 일반적 세대 연구를 위해서는 다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로퍼와 뱅슨의 세대단위 연구의 경우에도 만하임이 시사한 바 세대단위 형성의 조건과 과정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을 폐기하지는 않되 그보다 다소 느슨한 개념인 ‘세대내 분파(分派)’라는 개념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세대이건 내적 분화가 있기 마련인데 특정 세대를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것인가가 실제 연구에서 흔히 부딪치게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연구목적과 자료에 따라서 분파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연구를 다양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관공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내 분파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분파를 구분할 수도 있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동년배들의 분파를 식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중에서 어느 분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 봄으로써 세대내 분파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의 진보적 특성을 급진적 대학생들에게서 찾으며 그러한 특성을 젊은이 전체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과연 급진적 대학생들의 의식이 청년층 일반의 의식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 스피저(Spitzer, 1973: 1359-60)는, “우리는 (특정 세대의) 유의미한 특성들이 적합한 소수(the relevant minority)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동일성 혹은 대표성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 (세대)단위는 (세대간) 집합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괄호내 필자 추가)”라고 주장하였다. 일반화의 문제와 소수 엘리트 집단의 역할 문제를 분리하여 이해한다는 점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즉, 소수 엘리트의 특성이 세대 일반의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그 세대의 고유한 특성은 소수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의해 대표되며, 따라서 다른 세대와의 차이는 숫적으로는 소수인 그들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스피저가 말하는 소수(minority)는 만하임의 세대단위 혹은 어느 세대 내에서 괄목할만한 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수의 의미를 각 분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엘리트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수 집단 내에서는 또 다시 의식의 확고함, 행동의 투철성, 혹은 그 집단을 특징짓는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의 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세대간 경계선 설정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간 경계선 설정의 문제, 즉, 어느 세대가 다른 세대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구분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 왔다. 세대 구분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전제는 세대에 대한 일상적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 논의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실상 이 문제는 세대문제 연구분야에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대구분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매 초마다 사람이 태어난다”(Spitzer, 1973: 1355)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재치있는 비유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연대기적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배치되는데 세대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세대 구분의 문제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만하임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세대 엔텔라키' 혹은 '세대 스타일'의 창출과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세대의 본질을 그 세대 특유의 엔텔라키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급속하게 일어날수록, 특정 세대위치 집단들이 그들 고유의 엔텔라키를 창출함으로써 바뀌어진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이 커진다"(Mannheim, 1952: 310)고 보았다는 점에서, '세대 엔텔라키'의 출현을 사회변동의 함수로 보았다. 그러나 너무 급속한 변동은 엔텔라키의 발아(發芽)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하고 있다. 모든 세대위치 공유 집단이 그들 고유의 엔텔라키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정적인 집단경험(crucial group experiences)"을 공유하는 세대위치가 그들 고유의 세대 엔텔라키를 창출해 내면 그 세대는, 몇 년 몇 십년 혹은 몇 백년 후 보다 막강한 흡인력을 갖는 세대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 세대 전, 후의 세대위치들에 대하여 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Mannheim, 1952: 310 참조). "어디에도 부착되지 않은 요소는 항상 완전한 구성체에 이끌리게 마련이다(Mannheim, 1952: 310)."

세대구분·세대간격에 관한 만하임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실증주의 노선의 세대 연구자들은 연대기적 시간(chronological time)에 따라 세대구분을 확연히 하고 세대간격을 정하는 연구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오르테가와 마리아스의 연구가 그 예이다(Marías, 1970 참조). 그들은 세대가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생애단계 면에서는 75세까지의 연령을 15년 간격으로 나누어 30-45세와 45-60세 연령층간의 권력 투쟁이 역사발전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보았고, 역사적 시기 면에서는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태어난 해(혹은 30세 진입 시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 후 시점을 15년씩 끊어 나가는 방식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주기 단계상의 구분은 연령 성층화 이론의 견지에서 어느 정도 음미할 가치가 있지만, 역사적 시대구분도 위와 같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현대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만하임은 이러한 기계론적 세대구분 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앞서 밝혔듯이, 생물학적 리듬과 세대현상을 사회문화적 요인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이다. 만하임 연구에 대한 필처(Pilcher, 1994)의 독해(讀解)에 따르면, 세대구분 문제에 대한 만하임과 실증주의 노선 학자간의 인식 차이는 시간 개념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실증주의 노선의 학자들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연대기적·객관적·외재적 시간 개념에 집착함에 비하여, 만하임은 역사적 낭만주의자 딜타이(Dilthey)나 핀더(Pinder)의 주관적·내면적 시간 개념에 더욱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딜타이에게 있어서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은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는 주관적 조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세대를 구분하는 시간 간격 역시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이다(Mannheim, 1952: 282). 핀더의 "동시대인의 비동시대성" (the non-contemporaneity of the contemporaneous), 보다 정확하게는, "동년배적(Gleichaltrigkeit)이 아닌 것의 동시대적 공존(Gleichzeitigkeit)"(Marías, 1970: 114 참조)이라는 개념은, 연대기적으로 동시대(객관적·외재적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내면적 시간(세대경험 혹은 상황의 영향)을 달리하는 상이한 세대들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은 실증주의 학자들의 연대기적 시간 개념에 의 집착과 명확하게 대비된다.

그러나 세대 구분을 각 세대의 고유한 질적 경험에 따라 나누는 역사적 낭만주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때 세대를 연대기적으로 나누는 문제는 여전히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필처(Pilcher, 1994: 487)는 이 문제를, 세대 개념의 "질적 성격(즉, 질적 경험에 의해 구분되는 사회적 세대)과 숫자상의 단위로 측정되는 연령과 시간이라는 양적 특성간의 긴장"이라고 표현했다. 만하임은, 새로운 세대 혹은 세대 엔텔러키가 매년 출현할 수도 있고 몇 백년만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학자 스피저는, 세대 구분 즉 세대간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의 '임의성'은 계급·이데올로기 등 연속선상에서 범주를 구획하는 작업 일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인구학자들의 센서스 자료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불가피한 문제로 본다(Spitzer, 1973: 1358). 세대를 구분하고자 할 때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지적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인다. 실상 우리가 주관적·내면적 시간 개념을 받아들일 때 세대간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의 임의성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대간 경계선 설정은 궁극적으로 연대기적 시간상의 구분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시간 개념에 의해 구분된 시간은 역시 궁극적으로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피저는, 세대간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임의성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방법론적 신중성(methodological modesty)”이 확보된다면 경계선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적 입장을 펼친다. 그가 제시한 세대간 경계선 설정 방법은, “연령별 차이가 역사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자료상에서 드러난 집합적 행위(특정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집합적 추세의 의미임: 필자 주) 및 그것의 다른 집단에 대한 관계의 관찰이 적절한 설명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연속선상의 연령 집단들을 매우 적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Spitzer, 1973: 1358; 또한, Pilcher, 1994: 487 참조).¹²⁾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연령별 차이의 역사적 유의미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을 것인데, 이러한 판단이 연구자의 통찰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구분 방식은 세대를 역사적 실재가 아니라 명목적인 범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어떠한 코호트에 고유한 특성이 그 이후 코호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종국적으로는 이전 세대와의 세대차이로 시작한 특성이 전 인구층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의 지적은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디지털 세대 혹은 영상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즈음 젊은 세대의 특성이 앞으로 5, 6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연령층의 특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대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는 이상, 세대구분의 기준은 역시 궁극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특정 세대의 경험과 반응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만하임의 “결정적 집단경험”, 즉,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동 경험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로소우(Rosow, 1978) 역시, 일상적인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¹³⁾ 세대 개념의 “질적 성격과 ... 양적 특성간의 긴장”(Pilcher, 1994)은 화해되기 어려운 긴장이기 때문에, 세대구분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대에 대한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특

12) 스피저(Spitzer, 1973)는 논문 후반부에서 시기별, 연령별 백분율 차이를 검토하는 코호트 분석의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종류의 자료 분석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3) (Pilcher, 1994: 487)에서 재인용.

정한 주제나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사건·상황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면 합의의 영역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인다.

4.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사회갈등은 기능주의 시각에서나 갈등론적 시각에서 공히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기제(機制)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갈등의 한 차원인 세대갈등과 사회변동간의 관계 역시 이러한 일반론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만하임은 세대교체·세대갈등이 사회변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세대교체가 사회변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객관적 조건들의 지속적 변동에 대한 상대역(counterpart)은 그러한 변동을 행위체계에 반영하는 신세대의 지속적 교체에 있다”(Mannheim, 1952: 302)고 표현한 바 있다. 사회변동의 경험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낳고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다시 새로운 사회변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세대교체와 사회변동간의 순환적 상호작용을 시사한 것이다.¹⁴⁾

세대갈등과 사회변동간의 관계 역시 순환적 상호작용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앞에서 설명한 만하임의 “경험의 성층화”, “실계세대”, “세대단위” 등의 개념이 잘 시사해 준다. 양자간의 순환적 상호작용 관계를 만하임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수준의 사회변동은 개인의 수준에서 역사적·문화적 사건과 상황의 경험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 세대와는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내용과 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들 세대에 독특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이들 중 일부가 격변의 와중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때 강한 연대를 갖는 세대단위(사회운동 세력)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세대단위는 새로운 질서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회변동이 세대갈등

14) 연령성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의 대표적 인물인 릴리(Riley, 1985: 374)는 양자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다 직설적으로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일 코호트에 속하는 많은 개인들이 사회변동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들의 집합적 삶의 변화는 사회변동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사회변동을 인구학적 견지에서 접근한 라이더(Ryder, 1965)는 코호트 교체를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새로운 코호트는 사회변동이 일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자(intermediary)”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발생의 기반이 되며, 세대갈등은 새로운 사회변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60년대 후반이래 세대 연구자들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체제 저항운동을 세대갈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갈등이 주로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포이어는 19세기이래 학생운동을 세대갈등이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검토하면서 학생운동의 특성을 이상주의(idealism)와 비합리성(irrationality)으로 파악하고 있다(Feuer, 1969). 그들 학생세력은 새로운 사회질서 창출이라는 목표, 숭고한 도덕적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때때로 폭력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와 비합리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많은 세대갈등이 세대간 목표와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세대갈등을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 릴리(Riley, 1985)의 연령계층(age strata)간 갈등에 관한 논의는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는 연령 성층화(age stratification) 이론의 견지에서¹⁵⁾, 연령계층간 갈등을 “관념적(ideational)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으로 구분한다. 우선, ‘관념적 갈등’은 기본 가치와 목표의 충돌에 기인하는 갈등인데, 이러한 충돌은 연령계층간 표준(standards), 이데올로기, 태도 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한다. 기존 질서, 기성세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이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갈등이다. 둘째로, ‘권력 갈등’은 어떤 연령계층이 특정 연령계층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여길 때 발생한다. 정년 단축 시도에 대한 집단적 반발과 그에 따른 연령계층간 갈등이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분적 갈등’은 각 연령계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상대적 몫을 둘러싼 갈등이다. 각 연령계층은 보상의 몫은 늘리되 사회(혹은 다른 연령계층)에 대한 기여는 줄이려는 이해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배분적 갈등이다. 연공제(年功制)와 성과급제를 둘러싼 갈등, 노인복지비 증액과 관련한 갈등 등이 그 예이다.

15) 연령 성층화(age stratification) 이론은 1970년대 초 릴리(Riley)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연령에 관한 거시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사회란 사람과 역할들이 연령에 따라 등급 지워진 성층화 체계를 의미하며, 따라서 연령을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기반 중 하나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Riley · Johnson · Foner, 1972; Foner, 1974; Riley, 1985)를 참조할 것.

릴리의 이러한 유형화는 만하임의 시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릴리의 연령계층 개념과 만하임의 세대 개념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필자는 앞에서 세대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면서, 사회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세대 현상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만하임의 세대 개념이 갖는 사회운동적 요소를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릴리가 제시한 권력 갈등과 배분적 갈등은 서구 선진공업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하임의 관점을 계승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대표적 세대 연구자 벵슨(Bengtson, 1993)은, '세대간 형평성(generational equity)'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추세가 새로운 유형의 세대갈등을 출현시켰다고 시사한다. 요컨대, 정부의 복지예산이 노년 인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그에 대한 연령 집단별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집단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세대격차(generation gap)"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청년층 대 노년층간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노년층 대 청·중년층의 문제이다"라고까지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조만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Kim & Torres-Gil, 2000). 이러한 세대갈등의 새로운 양상을 고려할 때 릴리의 유형화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차이, 세대격차, 세대갈등의 개념은 종종 명확한 개념 구분없이 혼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세대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와 세대격차(generational gap)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대차이가 보다 일반적·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코호트 시각에 의거할 때, '세대차이'란 세대간의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다.¹⁶⁾ '세대차이'가 서로 다른 코호트간의 의식과 행위 면에서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데 비하여, '세대격차'는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주로 청소년층과 기성세대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이 개념에는 '세대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함의가 있다.¹⁷⁾ '세대갈등'은 세대차이(혹은 세대격차) 즉

16)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코호트 효과뿐만 아니라 연령 효과 혹은 생애주기 효과에 의해 빚어진 차이도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찰된 결과를 코호트 효과에 의해서만 빚어진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앞에서의 논의를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대간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 벵슨과 그의 동료들은(Bengtson et al., 1974), 세대차이가 너무 커져서 원만한 세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세대갈등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은 물론 사회변동의 함수이다. 안정된 사회에 비하여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사회일수록 세대차이는 커지며 세대갈등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갈등의 심층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적(顯在的; manifest) 세대갈등'과 '잠재적(潛在的; latent) 세대갈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재홍, 1995).¹⁸⁾ '현재적 세대갈등'이란 말 뜻 그대로 세대차이의 결과 세대간 갈등이 겉으로 표출된 드러난 갈등을 뜻하며, '잠재적 세대갈등'이란 세대차이의 결과 갈등이 잠복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억압기제(抑壓機制)에 의하여 겉으로 표출되지 못한 감추어진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억압기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특히 잘 작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억압 기제의 예로는, 보상과 처벌 기제(예: 청소년의 의존적 위치에 기인한 억압), 경로효친의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 체면과 명분·형식을 중시하는 문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대갈등을 이와 같이 나눌 때, 1) 억압기제의 작동 방식, 즉, 갈등의 현재화(顯在化)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억제되는지를 밝히는 일과, 2) 잠재적 갈등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현재적 갈등으로 진화(轉化)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에 대한 개념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세대 연구에서의 주요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 즉 세대 형성의 기반, 세대의 내적 분화, 세대 구분의 문제,

17) 스피쩌(Spitzer, 1973: 1360)는, 세대간 의식의 차이가 정상적 상황에서 생애주기 차이에 기인하리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크다고 인지될 때, 그 차이가 세대격차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세대차이가 오직 연령효과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8) 이러한 개념 구분은, 필자가 1993-94년 신세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이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출을 하지 못하면서도 '세대갈등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세대차이·세대갈등 개념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고 세대 연구의 한계를 논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위하여 세대 개념을 친족계보적 의미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는 코호트 혹은 연령집단 등의 개념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코호트나 연령집단과 같은 개념으로는 만하임류 세대론의 핵심인 역사적 역동성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코호트 시각을 견지하기는 하되, 만하임의 사회운동 특수적 세대 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개념에 대한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령효과, 코호트효과, 기간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효과들에 대한 고려는, 계량적 연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적, 질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 형성의 기반을 만하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만하임은 세대현상을 생물학적 리듬에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범주라고 보았다. 세대현상이 생물학적 리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오로지 사회·문화적 요인의 매개를 통해서만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세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의 형성은 의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만하임의 주요 개념인 '경험의 성층화', '새로운 접촉' 개념 등을 고찰하고 그 개념이 갖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만하임은, 청소년기를 의식 형성기, 혹은 세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시기로 본 것 같다. 이러한 기반이 사회변동과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세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어느 한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기는 하지만 그 세대가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세대나 내적 분화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대 내의 분파를 식별하는 작업은 세대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가 된다. 이러한 분파에 해당되는 개념이 만하임에게 있어서는 '세대단위'이다. 세대단위의 개념, 세대단위의 형성 과정과 조건을 고찰한 후, 세대단위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대단위 개념이 사회운동의 설명을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일반적인 세대 연구를 위해서는 세대내 분파라는 개념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세대에서 괄목할만한 분파의 특성을 세대위치 전반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검토

하였는데, 소수 엘리트의 특성이 세대 일반의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그 세대의 고유한 특성은 소수 엘리트의 특성에 의해 대표된다고 결론지었다.

넷째, 세대 연구에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인 세대간 경계선 설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세대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만하임의 입장과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실증주의 노선 학자들의 입장을 대비하면서, 양 진영의 중요한 차이가 시간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논의를 검토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때 세대를 연대기적으로 나누는 문제는 어떠한 이론적 입장을 취하건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계급, 이데올로기 등 연속선상에서 범주를 구획하는 작업 일반이 그러하듯이, 세대 구분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임의성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세대구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가 하는 점인데, 그 기준은 궁극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특정한 세대의 경험과 반응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세대갈등과 사회변동간의 관계가 순환적 상호작용 관계임을 밝혔고, 그에 이어서 세대차이·세대갈등 개념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세대 연구자들은 세대갈등을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세대문제의 연구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세대갈등의 유형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세대차이·세대격차·세대갈등의 개념도 상호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갈등의 심층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적 세대갈등'과 '잠재적 세대갈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대 연구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얻은 결론은, 1) 세대문제에 관한 만하임의 개념과 이론이 사회운동과 사회문화적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며 그의 이론 곳곳에서 지식사회학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과, 2) 그의 이론이 사회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만 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세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념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하임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점은, 1) 세대의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개념화, 2) '세대내 분파' 개념의 도입, 3) 세대차이·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의 필요성 제시, 4) '잠재적 세대갈등'과 '현재적 세대갈등'의 개념 구분

등이다.

세대 연구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은, 세대 요인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연령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세대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요인을 통해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대 요인에 대한 만하임의 이해는 이와 전혀 다르다. 그는 세대현상을 “역사발전의 역동성 발생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로 보았을 뿐이며, 세대현상 분석은 “세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기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분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Mannheim, 1952: 320). 이러한 지적은 세대 연구자들이 요술 지팡이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경고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박재홍(1992),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문학과 지성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8: 11-66.
- _____(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 651-683.
- _____(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가을): 257-296.
- 정태연·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21(1): 1-14.
-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김태현(1991),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2): 212-234.
-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3(1): 248-309.
- Bengtson, Vern L.(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Vern L. Bengtson and W. Andrew Achenbaum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3-23.
- Bengtson, Vern L., Michael J. Furlong, and Robert S. Laufer(1974), "Time, Aging, and the Continuity of Social Structure: Themes and Issues in Genera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Issues* 30(2): 1-30.
- Bengtson, Vern L., N. E. Cutler(1976),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NR, pp. 130-159.
- Bengtson, Vern L., N. E. Cutler, D. J. Mangen, and V. W. Marshall(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R. H. Binstock

-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VNR, pp. 304-338.
- Braungart, Richard G.(1974). "The Sociology of Generations and Student Politics: A Comparison of the Functionalist and Generational Unit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0(2): 31-54.
- Buss, Allan(1974). "Generational Analysis: Description, Explanation, and Theory," *Journal of Social Issues* 30(2): 55-71.
- Feuer, Lewis S.(1969), *The Conflict of Generations*. New York/London: Basic Books.
- Foner, Anne(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 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2): 187-196.
- Glenn, Norval D.(1977), *Cohort Analysis*. Beverly Hills/London: SAGE.
- Kertzer, Davi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im, Jung-Ki and Fernando Torres-Gil(2000).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Equ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한국노년학》* 20(2): 91-107.
- Laufer, Robert S. and Vern L. Bengtson(1974). "Generations, Ag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Units", *Journal of Social Issues* 30(3): 181-205.
- Mannheim, Karl(195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6-320.
- Marías, Julián(1970), *Generations: A Historical Method*,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Marshall, V. W.(1980). "State of the Art Lecture: The Sociology of Aging," Presented at the IX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ocial Gerontology, Quebec City, Canada.
- Nash, L.(1978). "The Concept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 1-28.
- Pilcher, Jane(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 Riley, Matilda W.(1985). "Age Strata in Social Systems." R. H. Binstock & E.

-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NR, pp. 369-411.
- _____, Marilyn Johnson, and Anne Foner(1972), *Aging and Society Vol. 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osow, Irving(1978), "What is a Cohort and Why?" *Human Development* 21: 65-75.
- Ryder, Norman B.(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 Spitzer, Alan B.(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s,"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1353-1385.

(2001. 10. 6. 접수; 2001. 12. 2. 채택)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Generations

Jae-Heung Park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generations. The issues include: 1) the concept of generation; 2) the basis of generational formation; 3) internal differentiation of generations; 4) the boundary problems of generations; and 5)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generational conflict.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se issues, two conclusions are drawn. Firstly, Mannheim's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frameworks are very useful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social movements and sociocultural changes. Secondly, however, further elabor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several concepts and frameworks are need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generations in general which are not directly connected to social movements. Several points are suggested to elaborate Mannheim's frameworks, which include the reconceptualization of generation, and introducing the concepts of "generation sects" and "manifest - latent generational conflicts".

Key Words: generational conflict, cohort, latent conflict, historical experiences, social movement, Mannheim